

치 사

우리나라 최고의 기도성지로 일컬어지는 선본사에서 일주문과 금륜교를 회향하여 준공식을 갖게 된 데 대해 여러 사부대중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.

이곳에 일주문과 금륜교가 들어섰다는 것은 팔공산 개산의 연원에 닿는 일이며, 그 아름다운 자용은 천년 역사의 세월을 담은 것이니 기쁨도 기쁨이려니와 우리 불가의 자랑스러운

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**주지하시다시피 약사여래부처님이
자리하신 ‘갯바위’는 너무나 유명한
기도처로 전국의 제방불자및 국민들이
찾고 있는 성지입니다.**

**그러나 비와 바람에 흩이 유실되고
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친환경의
글로벌 시대에 밖으로 드러난 전신주가
미관을 해치며 화재의 위험을 초래하고
있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.**

**하지만 주지 향적스님이 주저없이
일을 도모했으며 여기에 승속의 구분없이
뜻을 따르니 마침내 성역이 완성되었
습니다.**

**이 자리를 빌어 팔공산 개산 연원을
다시금 굳건히 하신 향적 주지스님의
노고를 높이 기리고자 합니다.**

**또한 일주문을 거쳐 금륜교를 개설
하고 전선을 모두 지중화 하는 등
팔공산 갯바위를 성역화하는데 물심
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김관용 경북도
지사님과 최병국 경산시장님의 크신**

결단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.

**아울러 우리 종단은 현재 경산시에서
추진하고 있는 삼성현역사공원 조성
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
이 사업이 완공되면 경산시는 세계
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비할 바 없는
자랑스러운 도시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.**

**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
어려움과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
지만 지혜롭게 풀어나가시어 꼭 원만
성취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.**

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!
이제 팔공산 갓바위는 일주문과
금륜교의 준공과 함께 법열의 환희를
맛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도량으로
탈바꿈하였습니다.

여러 사부대중의 기꺼운 동참이
산색을 역력히 밝혀놓았습니다. 그러므로
천변만화(千變萬化)에 처하여도 법등은
한결같이 중생을 밝히고 반야의 대광명이
기도객을 인도할 것입니다.

다시 한 번 일주문과 금륜교 준공식이
있기까지 뜻과 의지를 한데 모아

**여법하게 회향해주신 주지 향적스님과
관계자 여러분의 값진 노력에 박수를
보냅니다.**

**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로운
미소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**

**불기 2554년 12월 6일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**